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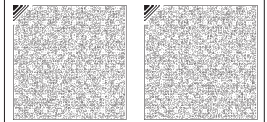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새보람

Saeboram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6년 5월 275호

(02) 796-4280 www.kappd.or.kr

3 뉴스

장애인 비례대표 전무
대안모색 아고라



12 특집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현장스케치



16 국제

일본의 장애인차별해소법
민간에 합리적 의무 부여



21 시선8616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타나 라왓 우승

홍석만, 국내 선수 1위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풀마라톤 선수들이 출발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타이의 타나 라왓(38, Tana Rawat) 선수가 영광의 월계관을 썼다.

타나 라왓은 이날 1시간 25분 30초로 42.195km 풀마라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그는 "작년에 준 우승했는데 올해 우승해서 정말 기쁘다"며 "향후 리우패럴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타이의 프라왓 와호람(35)은 박빙의 승부 끝에 1초 차이로 2위를, 러시아의 바이체크 알렉세이(29)는 3초 차이로 3위에 올랐다.

국내 선수 중에는 홍석만(41)이 1시간 29분 33초로 가장 빠르게 들어왔고, 이기학(44)과 유현대(43)가 뒤를 이었다.

하프마라톤은 한국의 정동호가 48분 21초로 우승했고, 일본의 시마다 카즈히코와 러시아의 간제이 알렉산더가 2·3위에 올랐다. 핸드사이클 하프 종목에서는 남자 H4~5 그룹의 경우 일본의 오쿠무라 나오히코, 남자 H1~3는 김용기, 여자그룹은 이승미가 각각 정상에 올랐다.

그 밖에 휠체어 생활체육 선수들은 5km 경쟁 부문을 통해 기량을 발휘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달린 5km 비경쟁 부문은 화합의 축제로 펼쳐졌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와 쇼트트랙 영웅 김동성이 이번 대회 홍보대사로서 어울림 부문을 달리며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또 경기장 안에서 지난 대회 홍보대사인 걸그룹 타히티와 가수 박효빈이 대회 축하 공연을 펼쳤고, 출

발식과 시상식 사회는 개그맨 배동성이 진행했다.

김광환 조직위원장은 폐회식에서 "오늘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세계 최정상급 휠체어마라토너와 우리 국민들이 함께한 축제였다"며 "편견의 장벽을 넘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품고 달린 모든 참가자 분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육상경기연맹, KBS 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이 협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12면에 계속〉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장애인 복지 증진 염원 기념식수 식재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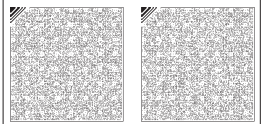
지난 5월 3일 전남 장성을 기산리 소재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대원, 이하 장성장복)은 300여명의 지역 장애인과 축하인들이 모인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관 수탁법인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을 비롯한 유두석 장성군수 등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며 복지관 앞 광장에 기념식수를 식재했다.

장성장복은 지상 2층, 건축면적 1504㎡ 규모로 지어졌다.

내부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부터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언어·심리치료실과 상담실을 갖췄다. 또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재활실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인 주간보호실을 개설했다.

한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월 장성장복의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후 개관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개관식에서 "‘섬기는 마음으로’라는 관훈을 가슴에 새기고 지역 장애인 복지 증진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성장복 이대원 관장은 "항상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장애인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종교법인 장애인복지관 운영 반대집회 일단락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장애인복지발전 협력교류 협약 도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조계사 앞에서 개최해 온 '종교법인 장애인복지관 운영 반대' 집회가 3개월여 만에 일단락 됐다.

지난 5월 24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협약을 체결하며 양단체 간에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고, 장애인복지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단체 간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관 운영기조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종교계의 장애인복지관 운영확대에 우려를 표시해왔다.

현재 수도권 장애인종합복지관 중 55.9%에 달하는 47개 기관을 종교계가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10년간 개관한 복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조계사 앞에서 '종교법인 장애인복지관 운영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지관 중 종교계 수탁 점유율은 61%로, 점점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장애계에서는 종교계가 장애인 이용시설을 전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당사자 육성 및 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점, 그리고 신도들 인사에 채용하거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 등을 비판하

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의 경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장애인복지관 수탁을 둘러싸고 종교법인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2015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화성시장애인복지관의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것에 항의하며, 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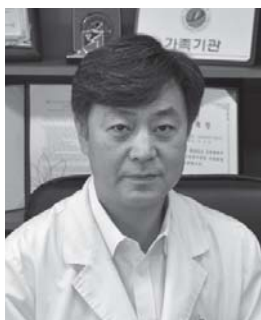
시청과 조계사 등에서 '종교법인 장애인복지관 운영 반대'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집회에 참여한 300여 명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당사자가 운영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장협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향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장애인 복지발전에 협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식의 의미를 전하고 "과거 사회복지분야에서 종교계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국내 복지수준은 사회적 분배위주의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 종교계는 장애인복지와 같은 전문적이고 당사자기반의 가치 지향적 복지 분야에 대한 접근보다는 정신적으로 척박해진 현대인의 마음치유와 가치관 설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종교계 복지 참여 정책의 수정과 새로운 사회소통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장협은 조계종뿐 아니라 다른 종교법인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장애인당사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양유휘 원장.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산재보험 대상자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인증의료기관이 기존 34군데에서 올해 53군데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의료기관을 내년까지 60군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재활인증의료기관인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들은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통합재활시스템을 구축해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재활치료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공공병원의 모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실력은 최고, 비용은 최저 원스톱 재활 구축

(이하 인천병원) 양유휘 원장은 "재활치료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최최의 신체적, 감각적, 지능적, 심리적, 사회적 수준을 성취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치료"라며 재활치료가 중증 환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활치료란 통증이나 일시적 질환, 외상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질 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치료를 뜻한다. 즉 재활치료 대상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양유휘 원장은 특히 장애인은 어떤 시기에 치료를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느냐가 1년 후, 3년 후, 그리고 평생 얼마만큼의 장애가 남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천병원의 경우 '산재환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초기 치료와 재활뿐 아니라 사회·심

리재활 및 사회 복귀 훈련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면 주치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팀의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다.

또 인천병원은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 지하 3층, 지상 4층의 재활관을 신축했다. 이에 따라 재활의학과, 재활전문센터, 재활입원실 등 재활관련 시설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재활관에서 눈길을 끄는 곳은 수중재활치료실이다. 수중재활치료는 통증이나 낙상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실은 길이 25m 레인 5개 규모의 수중운동

풀을 비롯해 수중치료 풀, 수중이완 풀, 와류 풀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밖에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들은 산재환자뿐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병원의 경우 2012년부터 외과계 의료진을 개편하고 내과 3과와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는 등 지역의 의료 수요를

반영한 지역친화 경영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귀감이 되고 있다. 약 20년 전부터 인천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장소 제공을 하며 기능장애인을 지원해왔다. 인천병원은 올해 6월 29일부터 열리는 대회에서 개막식 및 시상식과 운영본부 사무실 지원부터 목공예, 가구제작, 미술, 양장 등의 경기장을 제공한다.

양유휘 원장은 "환자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전 직원이 진정성 있게 응대하려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전경.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장애인 비례대표 전무, 대안은?

당헌·당규 명문화, 장애인 정치역량 강화 등 토론 활발

장애인 비례대표가 한 명도 없는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장애인 정치세력화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5월 10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이번 아고라식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공동 주최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장애계 대표 단체의 인사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당일 아고라는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중계됐고, 한국장총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서 생생한 현장을 시청할 수 있었다.

장애계의 각개전투 반성

아고라는 '제20대 총선, 장애계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각 토론자의 솔직한 대답으로 시작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이종성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연대도 정책 연구와 공약 제안 등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러나 장애 대중의 열망을 저버렸던 지난 19대 총선의 후유증으로 비례대표 선출에 관해서는 합심하지 못했다. 그런 채로 장애계 인사들이 개개인의 활동 역량을 통해 진입하려다 보니 더 어려워졌다"고 평했다.

장총련 정치영 사무국장은 "19대 총선의 트라우마로 장애계는 각각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



장애인 정치세력화 대안모색 아고라가 열렸다.

한 것 같다. 장애계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정치권에서 한 자리만 상징적으로 부여하며 다툼을 조장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비례대표를 사회적 대의보다는 단순히 표로만 환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강완식 정책실장은 "각 개전투의 패배다. 17, 18, 19대 연속 비례대표를 줬으니 또 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장애계의 반성을 촉구했다.

당헌·당규 명문화 요구

이에 지장협 이종성 사무총장은 "장애계가 인입했던 점이 있지만, 반성만 하는 것은 장애계를 외면한 정치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향후 총선연대는 20대 총선의 실패를 거울삼아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장애인 비례대표 선출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사랑자립센터) 이상호 소장은 "장애 비례대표 한명을 누굴 보내나 하는 소박한 논쟁은 그만하자"며 "장애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장애인 비례의원도

10%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총련 정치영 사무국장은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가 줄었다. 의석수가 줄 때 장총과 장총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제가 있을 시 사회보편적인 연대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의회정치대학 필요

한편 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계에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인물은 많지만 이를 통합할 만한 리더가 부재하다. 장애계의 다양한 요구와 입장을 대변할 리

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장애인 리더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입장에 따라 벽을 만들지 않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사랑자립센터 이상호 소장은 "정치권에서는 기존 비례대표 의원의 존재감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장애계에서는 양질의 선수를 보내야 한다"며 지장협에서 1998년부터 4년간 역량을 투여해 장애인 정치인을 길러냈던 의회정치대학을 예로 들었다. 이 소장은 "장애계에서 단순히 장애인 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 만들어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의 의견에 이어서 발언한 한시련 강완식 정책실장은 "월드컵도 4년 동안 준비하는데 우리는 선거에 닥쳐서 논의하는가?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장애인계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총련 정치영 사무국장은 "장총과 장총련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 비례의원이 한 명도 없는 20대 국회에서 앞으로 4년간 장애계 현안을 누구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인식개선 '내일은 맑음' 성료

장고협, 실질적 역량 강화 도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가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5회에 걸쳐 역량 강화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내일(Work)은 맑음'을 진행했다.

1회차 교육에서는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의 공모 부문 중 운문·산문 부문과 관련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글로 쓰고, 전문가의 첨삭을 받았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회차 교육은 사진 부문과 관련해 단련할 기회를 제공했다. 사진의 이론을 강의한 후 단순히 이론 전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의도공원으로 출사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몸소 익히도록 했다.

그 밖에 이미지메이킹 및 SNS 활용 교육 등을 통해 참가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를 이끌었다.

한 참가자는 "교육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다"며 "공모전에 도전해서 꼭 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장고협은 6월 24일까지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내일(Work)은 맑음' 프로그램 중 사진 교육 장면.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작품현상공모전 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고협 홈페이지(www.kesad.or.kr)를 참고하

거나 공모전 담당자(02-3210-4056)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개최

리프로포즈 사진촬영, 힐링 토크쇼 등



지난해 열린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모습.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오는 6월 3일 여의도 GLAD 호텔에서

‘2016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지장협은 수기 심사를 통

해 선정한 장애인 부부 48쌍을 초청해 모범 배우자를 표창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배우자 15명이 ‘장한 배우자상’, ‘아름다운 배우자상’, ‘자립상’, ‘가화상’,

‘특별상’을 수상하고, 33명에게는 모범배우자상을 전달한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 배우자 분들을 모시고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리프로포즈 사진촬영과 가슴 따뜻한 힐링 토크쇼를 진행한다”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행사로 준비한 리프로포즈 사진촬영은 이벤트 소품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부부사진을 남길 수 있다.

한편 지장협은 1994년부터 매년 장애인 부부를 격려하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가 후원한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개원

국내 첫 통합형 장애어린이 의료재활서비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푸르메재단

지난 4월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기부자, 기부기업,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병원은 시민 1만여 명과 넥슨 컴퍼니를 포함한 500여 개 기업의 기부, 마포구, 서울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건립했다. 개원

식에서 푸르메재단 김성수 명예 이사장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를 전하며 테이프 커팅을 했다. 이어서 국내 1호 의수화가 석창우 화백이 개원을 축하하며 수목 크로키 퍼포먼스를 펼쳤다.

병원 기자재를 지원한 보건복지부 정진업 장관은 “장애어린이에게 통합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제대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린이재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어린이재활병원의 모델로 발전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축비와 의료장비를 지원했고 연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은 “장애어린이가 행복한 삶을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해야

4인 이하 사업장 제한 완화 필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격 조건 완화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건의하고, 비영리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의 장애인사업주까지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유지 조건 하에 보조공

학기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거나 하는 경우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다.

솔루션 측은 “비영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만, 규모가 4명을 초과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이 많다”며 “지원 자격 조건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지상 7층과 지하 3층 등 전체면적 1만 8557.73제곱미터(약 5560평) 규모이며, 입원 병상 91개, 낮 병상 40개 등을 갖췄다.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건강정신과, 치과 등 4

개 진료과와 재활치료센터(물리, 작업, 언어치료 등)를 비롯해 수영장, 문화교실, 직업재활센터, 어린이도서관, 다목적홀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다. 장애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까지 하루 500명, 연간 15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사는 미래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비전과 목표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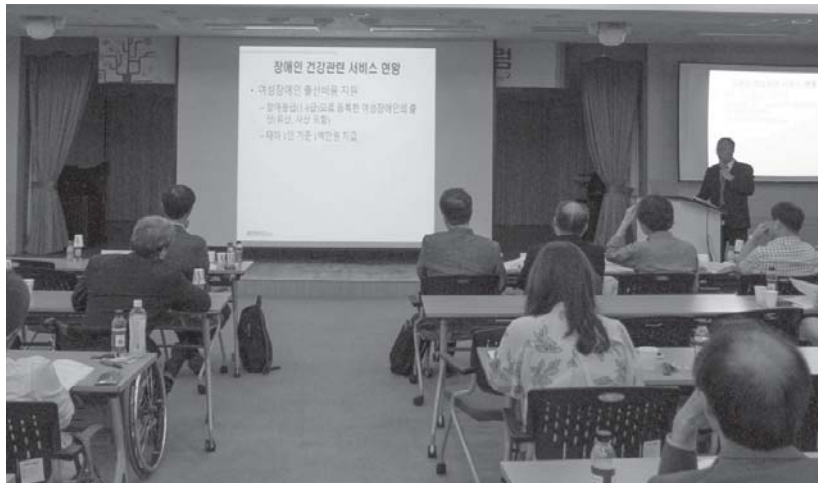
10년 후 장애인정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정책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월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 미래포럼'을 진행하며 향후 비전을 밝혔다.

먼저 미래포럼의 총괄 분과를 맡은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는 10년 후 장애인정책의 비전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자립의 미래 구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목표는 "10년 후 장애인의 삶을 예측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10%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격차 없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 과제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지원법 실효성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 ▲장애인 건강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마련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이 안내도나 안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전경.

다.

장애인 편의시설 측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BFN증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모델이 될 만한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편의시설 설치가 당장에는 투입할 비용이 발생해서 손해인 듯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 대비 효과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미래 도시설계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인식개선교육, 설계도면 감리, 시공 감리,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명령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각장애인의 경우 올해 공표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기반으로 수화 언어를 사회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청각장애는 단순 기능의 단절이 아니라 사람과의 단절"이라며, "10년 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청각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적, 문화적 다름에서 오는 장애를 틀림으로 생각하는 오류"라고 밝혔다. 이어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권리보장 로드맵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는 권리보장 분과 발표에서 "급부행정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권익 옹호에 소홀했던 점에 반성하자"며 장애인복지를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초생활보장에서 부양의무제 문제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급부행정의 집행에 있어 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한 '장애인 권리보장 로드맵'을 밝혔다. 그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통합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사회 전반의 장애인 차별 철폐와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크게 ▲권익옹호시스템 마련 ▲인권 침해적 제도 개선 ▲교육

홍보 등 인식개선이다.

김진우 교수는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전제 조건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가족과 당사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활동보조인 등 돌봄제공자 간의 권익 옹호 관련 역할 명확화 ▲장애인 복지 실천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장 ▲서비스 이용 과정에 대한 이익제기 절차 체계화 및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장애인 권익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법령을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등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득·고용 분과에서는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가 비전 및 목표로 '소득 보장과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단기 추진 과제로는 ▲근로능력에 기반을 둔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경제적 지원을 통한 빈곤 감소 및 생활 안정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지원 정책 연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을 꼽았다.

이밖에 미래포럼에서는 서비스·자립 분과와 건강 분과의 정책과제 발표가 이어졌고,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가 '인공지능의 이해와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하며 마무리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7월 15일까지 접수, 8월 31일 수상작 발표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재단)이 '2016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콘텐츠 공모를 통해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고정관념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

한국장애인재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신한카드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UCC 영상과 카드뉴스의 2개 부문 작품을 공모한다.

UCC 영상은 40초 이상 1분

이내의 영상물로 제작해야 하며, 카드뉴스는 6장 이상 12장 이내의 이미지 파일로 제작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7월 15일까지며, 재단 홈페이지(www.herbnaum.org)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응모작과 함께 웹하드를 통해 접수하

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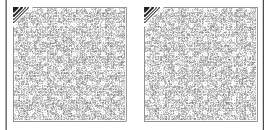
응모작 중 적합성, 창의성, 기술성, 홍보 활용도를 기준으로 심사해 오는 8월 31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대상 1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며, UCC 영상과 카드뉴스 부문별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입상 3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작은 만들어가기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나 전화(02-6399-623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포스터. © 한국장애인재단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체육 원스톱 서비스를 말하다

국민체력100 사업 장애인부 도입 연구 논의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김성일)가 '장애인체육 ONE STOP 서비스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장애인체육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현재 추진 중인 '국민체력100 사업 장애인부 도입 연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의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평가해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국민의 체육복지 서비스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체육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공개 토의를 벌였다.



'장애인체육 ONE STOP 서비스를 말하다' 세미나 전경.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박재현 교수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체력100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장애인에게는 아직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에 따라 박재현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연구팀을 만들어 국민체력100 사업에 장애인 분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한 체력 기준 설정,

운동처방 프로그램이라는 큰 틀에 맞춰 연구 중이다.

박 교수는 "비장애인용 국민체력100 사업과 동일한 브랜드로 진행할지, 장애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

한 브랜드를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오광진 교수는 "장애인들은 장애 등급과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업을 시행할 때도 다양한 표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과학실 박세정 선임연구원은 "생활체육 활성화 전략에 대한 실험 결과가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현상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체력100 사업의 장애인부 도입 연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 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2017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 '복지가이드북' 발간

복지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 제공 노력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4월 28일 밝혔다.

이번 시각장애인용 가이드북은 지난 2월에 발간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가이드북'을 음성 및 텍스트 데이터(DAISY) 형태인 시각장애인용

맞춤형 책자로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중앙부처 371개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 내용이 생애주기별로 알기 쉽게 정리

돼 있다.

또한 이 책자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포(www.bokjiro.go.kr),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국립장

애인도서관(nlid.nlid.go.kr),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n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내려받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시각장애인용 책자 발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의 사회보장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수혜자가 정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장애인콜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

장애인콜택시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설공단, 6월 10까지 접수

해 '장애인콜택시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인콜택시와 관련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출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6월 10일까지 이메일

(commu83@sisul.or.kr)로 접수하면 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임신부들도 병원 진료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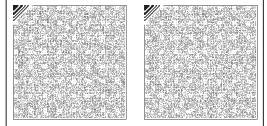
공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등 총 7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은 상금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상장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공단(02-2290-6474)으로 전화하면 된다.

서울시설공단 전기성 장애인콜택시 운영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시민이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한다"며 "공모전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는 실제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총 474대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 편의시설 홍보 서포터즈 발족

홍보 캠페인과 주차구역 모니터링 등 참여



김창환 단장이 편의시설 서포터즈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편의시설설치시민 촉진단(단장 김창환, 이하 대구 촉진단)은 4월 20일, 올바른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제1기 편의시설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는 편의시설에 관심 있는 대구시민 90여 명으로 구

성됐다. 위촉일로부터 올해 12월까지 지역 내 홍보 캠페인 참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및 무단사용 표지판 신고 등의 편의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홍보와 모니터링단 업무를 맡는다.

대구촉진단 관계자는 "대구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구비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서포터즈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합심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포상 혜택도 부여한다"며 서포터즈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광명시지회, 인도·몽골과 편의시설 교류

장벽 없는 국제 사회 만들기 다짐



인도와 몽골인들이 광명시지회를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교류 차 인도와 몽골 관계자가 각각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지회장 유희민, 이하 광명시지회)를 찾았다.

먼저 인도의 벵갈루루에 있는 그리스도대학교 교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들이 방문했고, 몽골에서는 바가누르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관계자와 시민구의회, 어린이집 원장들이 방문했다.

이날 유희민 지회장은 광

명시지회에서 진행되는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모니터링이나 편의시설 홍보 캠페인 등을 소개하며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밖에 장애인 복지사업 중 대표적으로 무료급식, 이·미용봉사, 장애인 이동 봉사차량, 장애인 재활 자립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유희민 지회장은 인도와 몽골의 관계자들에게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활발

택시면허 취득 및 운행초기 3개월 사납금 지원



지난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장애인 택시운전원 취업 지원 업무협약식 모습.

경기도가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택시면허 취득과 택시회사 취직을 연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 교육생을 모집했다.

외적으로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진행했고, 내적으로는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장애인 택시운전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그 결과 사업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참여인원 55명, 택시면허취득 23명, 취업 14명 등의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 올해 목표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성과를 얻은 셈이다.

사업 참여자인 김 모 씨는(지체 3급)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을 통해 택시면허를 취득하고 택시업체에 취업했다. 많은 사람이 사업 지원을 받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은 사업 참여자에게 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택시회사 면접 등의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채용이 확정된 장애인에게는 운전 연수와 차량 개조, 수입저조가 예상되는 운행 초기 3개월의 사납금 일부를 지원한다.

참여 상담 및 신청은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총무기획부(070-5097-0893)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지회, 파크골프 프로그램 시작

건강 증진과 장애인 체육의 가치 향상 도모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지회장 윤종문, 이하 안성시지회)는 5월 4일부터 안성천 시민체육공원에서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골프를 즐기기 어려운 형편임에도 안성시지회 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 직접 장소를 탐색해 흙길을 파고 길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을 벌였다.

이 같은 회원들의 정성스런 준비 끝에 시작한 첫 강의 시간, 파크골프를 처음 대하는 회원들을 위해 강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교습했고 선수들은 집중하며 수업에 임했다.

윤종문 지회장은 "열악한 여건에서 시작하는 파크골프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개최

김정옥의 '모과' 전체 대상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 이하 경북지장협)는 5월 4일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2016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는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예술창달에 기여하고자 기획했다.

전체 대상은 '모과'를 그린 김정옥 씨가 수상했다. 그림 부문 금상은 '흙연예방 포스터'를 출품한 금혜진, 서예는 '관동별곡'의 박점수, 사진은 '문경새재 산

행길'의 장미자, 시는 '끌어당기면'의 김성선, 수필은 '반갑지 않은 손님'의 김건우 씨가 각각 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안동대학교 권태환 총장, 정창진 안동부시장, 김명호 도의원, 김한규 안동시의회의장, 홍두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가 참석해 장애인예술가들을 격려했다.

김영식 협회장은 "경북지장협은 도내 장애인의 활발한 예술 활동을 지원해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지회,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1, 2급 장애인과 일시 장애 휠체어 이용자 탑승



4월 27일 열린 휠체어리프트차량 전달식.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 이하 문경시지회)는 5월 1일부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를 도입하고 운행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문경시지회는 4월 27일 문경시(시장 고윤환)와 특

별교통수단 운영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홍진 지회장과 고윤환 시장은 장애인 이동지원 협력력을 다짐했다.

이번에 도입한 차량은 1, 2급 장애인과 일시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이 보호자와 함

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5km까지 기본요금 1,300원, 5km 초과 시 1km당 200원이 추가된다. 시외구간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까지 운행하며,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휠체어리프트차량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예약 등 기타 사항은 문경행복콜(054-556-7755)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진 지회장은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시지회, 장애인 이동상담

고령장애인 정보 습득 지원



장애인 종합민원 이동상담실에서 장애인 복지 상담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이하 김천시지회)는 5월 11일 부향면사무소에서 부향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종합민원 이동상담실을 열었다.

이날 이동상담은 지역 장애인에게 변경된 복지시책을 전달해 정책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돕고자 마련했다. 상담소에 들른 장애인들은 복

지시책 안내를 들으며 정보 습득을 해소했다.

한편 김천시지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찾아 이동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김천시지회 관계자는 "정보 습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고령장애인의 호응이 높다"며 "앞으로도 김천시 관내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해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 자장면 나눔

포스코 선재부 1선재공장 지원

포스코 선재부 1선재공장(공장장 김진근) '다사랑봉사회'는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산하 청림분회(분회장 송호립) 회원들을 초대해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5월 3일 다사랑봉사회는 청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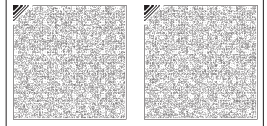
분회 회원들에게 자장면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커피와 떡 등 간식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우현 포항시의원을 비롯해 김만식 청림동장과 주민센터 직원들도 함께 하며 나눔 활동에 응원을 보냈다.

김진근 공장장은 "소박하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며 "경기가 어려워 힘들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선재부 직원 67명으로 이뤄진 다사랑봉사회는 지난 1998년 청림분회와 인연을 맺었다. 분기별 후원금 전달을 비롯해 말벗봉사와 생필품 지원 등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포스코 선재부 다사랑봉사회가 지역 장애인들에게 자장면을 나누고 있다.



제주지장협,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겪는 이중적 어려움 대응



제주지장협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종, 이하 제주지장협)는 4월 23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홍부경 부소장을 초빙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여성장애인 근로자들이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겪는 이중적인 어려움 속에서 직장 내 각종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예방법 등을 전달하며 건강하고 평등한 직장생활을 응원했다.

제주지장협에서는 여성 이외에도 남성, 중증장애인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대상 특강 프로그램 호평

수원시지회, 건강관리와 역사교육 진행



수원시지회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지회장 최종현, 이하 수원시지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 강좌 및 역사문화특강을 시작했다.

4월부터 총 11회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동남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황통 교수가 건강 강좌를,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가 역사문화강좌를 맡았다.

먼저 진행한 건강강좌에서는 장애로 인해 건강에 특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야하는 장애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교육했다.

또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 준비한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수원과 경기도의 역사적인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수강생은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일상속의 건강관리 방법을 쉽게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수원시장애인복지과와 교육청소년과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매월 2회씩 진행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정 행복한 만남

특별한 가족 '추억하나' 2회기 시행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서현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정의 소통을 위한 '특별한 가족-추억하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5월 14일 논산 연산역에 모인 장애인과 비장애 연결가정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색다른 체험을 하며 돈독해졌다. 일일기관사 체험으로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토끼생태 체험장을 방문해 직접 토끼를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감정을 교류했다.

장애가정의 한 부모는 "이색 체험을 통해 가까워지는 시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결가정이 논산 연산역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었다"고 말했다.

특별한 가족 프로그램은 앞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 가정과 비장애인 가정이 교류하는 사회통합지향형 프

로그램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복지관 가족지원팀 (041-856-70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장복-영무토건 MOU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합심



진천장복과 영무토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은 5월 11일 ㈜영무토건(현장소장 임완웅)과 지역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진천 지역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보수 관리 서비스를 공동 제공하고, 기타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한명수 관장은 "영무토건과의 교류가 지역 장애인 복지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신도청 장애인 편의시설 견학

청송군지회 장애인 회원 만족도 높아



청송군지회 장애인들이 경북신도청 장애인 편의시설을 견학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지회장 조승철, 이하 청송군지회)는 5월 18일 경북신도청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경북신도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 주차구역, 복도,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송군지회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주로 살펴보고 도청과 도의회를 불려 없이 견학했다.

조승철 지회장은 "경북신도청처럼 편의시설을 잘 갖춘 곳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송군지회도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홍보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미술 작품, 법원에 걸다

북부장북, 장애인 미술 특별전 개최



전시회에서 장애인 작가가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이 걸렸다.

서울시립북부장비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북)은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3, 4층 서부공간 갤러리에서 '장애인 미술 그대와의 채움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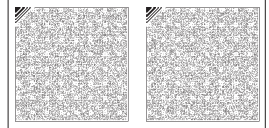
이중 4월 20일 열린 개장식에서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법원에서 장애인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어 좋다"며, "법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개장식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갤러리 라운딩을 한 후 다과를 나눴다. 또 개장식에 참여한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 설명을 하며 작품 이해를 도왔다.

전시 기간 3층에는 서울시립

소리로 읽는 새보람



북부장비인종합복지시설 발달 장애인작가들의 개성 있는 서양화 8점을 걸었고, 4층에는 북부장북 미예찬동호회 미술작가들의 개성이 담긴 작품 18점을 전시했다.

손영호 관장은 "이번 미술전을 통해 장애인 미술가와 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계기가 됐"고 밝혔다.

유성장북, 개관 11주년 기념식

장애인 복지 발전 공로자 21명 시상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성도, 이하 유성장북)은 4월 28일 개관 11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다. 천여 명의 장애인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축하 11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장기자랑이 열렸고,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이정애무용단, 유성구합창단 등이 공연을 펼쳤다. 또 복지관 기타교실의 연주와 청소년하모니합창단의 화음도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성장북은 기념식에서 장애인 복지 발전에 헌신한 21명의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모범 장애학생 1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념식은 복지관 다드림



유성장북이 개관 1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多Dream) 후원회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후원으로 풍성하게 치러졌다.

손성도 관장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 복지관은 정성을 다해 장애인들을 섬겼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

역사회 통합을 추진해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한 대전 최고의 복지관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의 10년은 장애인에게는 희망을, 복지관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천장북, 체육대회 개최

장애인 체력증진과 친화력 향상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근, 이하 영천장북)은 5월 13일 영천강변체육공원 축구장에서 2016년 주간보호센터 상반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주간보호센터 이용고객 12명과 영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고객 19명, 각 센터 인솔교사 6명이 참가했다.

영천장북이 준비한 경기는 고리던지기, 색판뒤집기, 장애물 이어달리기, 신발던지기, 줄다리기, 보물찾기로 총 7종목이었다. 참가한 장애인들은 즐겁게 뛰면서 서로간의 친목을 다졌다.

이용고객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개

최한 이번 체육대회는 상·하반기 2회로 진행된다.

영천장북 주간보호센터는 "앞으로도 체육대회를 통해 이용고객 간의 친화력을 도모하고, 사회성 향상과 체력증진으로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사고를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행복나눔 봉사단 환경개선 활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장애인으로 모범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한 후 한하게 웃고 있는 행복나눔 봉사단원들.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선) 행복나눔 봉사단의 활동이 괴산 지역에서 화제다.

5월 12일 행복나눔 봉사단 20여 명은 괴산을 소재지 일원에서 거리 환경개선 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단은 조를 나누어 거리 환경개선을 시행했으며, 100리터 쓰레기봉투 5개 분량의 쓰레기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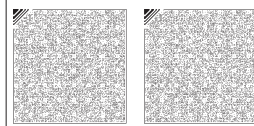
정호선 관장은 "장애인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자"고 격려했다.

행복나눔 봉사단은 그동안 산막이 옛길, 흥법식 고택, 동진천변 등에서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펼쳐 깨끗한 괴산을 가꿔가는 데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달성장복, 너나들이 한마당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장애공감축제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복)은 4월 27~29일 3일간 복지관 광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공감축제 '너나들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달성장복은 '장애와 스포츠'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지역 참여형 축제를 만들고자 달성군청, 대구시장애인체육회와 같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준비했다.

행사는 크게 장애인해교육과

장애체험으로 구성됐다. 장애체험은 장애인스포츠포럼으로 구성됐다. 준비한 종목은 휠체어테니스, 론볼, 보치아, 휠체어농구, 조정, 배드민턴, 휠체어럭비, 핸드사이클로 총 8가지였다.

4월 27일에는 동곡초등학교를 비롯한 6개 학교에서 264명이 참가했고, 4월 28일에는 구지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서 563명, 4월 29일에는 비슬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서 629명이 참가했다. 3일간 10개 초등학교와 3

개 대학교에서 총 1,456명이 참여해 장애공감축제를 즐겼다.

휠체어 럭비에 참여한 남동초등학교 6학년 박세은 어린이는 "이번 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우선 관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교육 내실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장애학생들이 휠체어농구를 체험하고 있다.

아산장복, 5월의 러브레터 진행

가족에게 엽서 쓰며 기부 동참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은 5월 5일 신정호 아의음악당에서 열린 '2016년 어린이날 기념 아산 어린이 큰잔치'에 참여한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아산장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엽서를 쓰는 '5월의 러브레터' 사업을 진행하며 장애 체험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했다. 시민 150여 명은 가족을 위해 엽서를 쓰며, 지역 장애인 복지에 위해 기부를 했다.

엽서 쓰기에 동참한 한 시민은 "어린이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엽서를 쓰고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



아산장복이 진행한 5월의 러브레터 부스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창호 관장은 "5월의 러브레터를 통해 특별한 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동시에 기부분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했다.

아산장복은 이번 행사 외에도 생일,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위한 러브레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러브레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권익옹호지원팀(041-545-7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체험 통해 배려 다짐

문경장복, 초등학생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초등학생들이 휠체어타기 장애체험을 하고 있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복)은 5월 12일 가은초등학교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한 이번 교육은 장애인해 이론 교육으로 시작해 뇌병변장애1급인 신모군의 희망이야기를 들려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휠체어 타기와 안대 쓰고 힌지팡이 사용하기 등의 장애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애체험에 참여한 이모 학생은 "안대를 쓰고 걷는 게 두려웠다"며 "앞으로 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경장복 측은 향후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장애인해 이론 교육과 장애체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부모 셀프감정코칭 특강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위해 제언

용인시차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상구, 이하 차인장복)은 4월 19일 장애인 부모를 위한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셀프감정코칭'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좌는 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가 일상에서 겪는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모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립해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강의는 휴먼브랜드연구소 더인의 권민호 강사가 맡았다. 그는 셀프감정코칭을 통해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강에 참여한 부모들 간의 공감

대 및 심리적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차인장복 측은 하반기에도 장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 및 프로그램 문의는 차인장복 사례관리팀(031-320-4825)으로 하면 된다.



차인장복이 진행한 셀프감정코칭 특강 모습.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현장스케치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출발식.



김광환 조직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대회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폴리마톤 선수들이 출발하고 있다.



5km 경쟁 부문 선수들이 출발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어울림 부문.



도로 위를 힘차게 달리는 휠체어마라토너들.



핸드사이클 선수들이 달리고 있다.



폴리마톤 우승자 티나 리왓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국내 1위를 차지한 황석만.



휠마라톤 10위권 선수들의 시상식.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봉준과 김동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탐앤탐스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후원했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의무지원을 했다.

휠마라톤			
순위	성명	국가	기록
1	라왓 타나	타이	01:25:30.80
2	와호람 프라왓	타이	01:25:31.05
3	알렉세이 바이체넬	러시아	01:25:33.29
4	소에지마 마사즈미	일본	01:25:44.04
5	호키노우에 코타	일본	01:26:45.79
6	암파이 살루앙	타이	01:29:06.04
7	요시다 료타	일본	01:29:07.04
8	홍석만	한국	01:29:33.04
9	라파엘 보텔로	스페인	01:29:33.31
10	사이먼 로슨	영국	01:29:38.06

휠마라톤 T52			
순위	성명	국가	기록
1	이봉준	한국	02:08:00.04

휠마라톤(여)			
순위	성명	국가	기록
1	나탈리아 코체로바	러시아	01:49:58.54
2	악자나 아브디카리모바	러시아	02:04:38.55
3	에바 페데레로	스페인	02:22:30.30

풀마라톤(국내)		
순위	성명	기록
1	홍석만	01:29:33.04
2	이기학	01:39:40.49
3	유현대	01:50:50.29
4	이윤오	01:50:55.59
5	홍수화	01:56:06.79
6	이봉준	02:08:00.04

하프마라톤(여)			
순위	성명	국가	기록
1	김수민	한국	01:04:02.79

하프마라톤			
순위	성명	국가	기록
1	정동호	한국	00:48:21.28
2	시마다 카즈히코	일본	00:48:26.79
3	알렉산더 간제이	러시아	00:48:32.29
4	카와무로 류이치	일본	00:48:43.05
5	유병훈	한국	00:51:07.29
6	와타나베 슈스케	일본	00:51:24.03
7	사노 준이치로	일본	00:57:56.30
8	윤현재	한국	00:58:06.81
9	아르센 쿠바노프	러시아	01:03:13.29
10	아마구치 사토시	일본	01:03:17.29

하프마라톤 T51			
순위	성명	국가	기록
1	최재웅	한국	01:50:14.05

하프마라톤 T52			
순위	성명	국가	기록
1	아르템 시시코브스키	러시아	01:05:51.04
2	김준용	한국	01:18:53.79

핸드사이클			
순위	성명	국가	기록
1	오쿠무라 나오히코	일본	00:54:27.04
2	김용기	한국	00:54:55.79
3	정수환	한국	00:54:57.29
4	신익현	한국	00:55:42.29
5	수에요시 마사미	일본	00:55:58.29
6	이정민	한국	00:56:31.04
7	최기석	한국	00:56:38.04
8	양정관	한국	00:57:14.29
9	최중건	한국	00:57:21.29
10	최문기	한국	00:57:38.05

5km T51/T52 청년(남)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노병일	경북	00:26:38.67
2	안영준	충남	00:28:17.78
3	조대성	경북	00:35:48.27

5km T53/54 청년(남)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이동렬	대구	00:19:59.98
2	김호용	제주	00:20:17.46
3	김동현	제주	00:21:10.98

5km T51/T52 장년(남)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장용환	경기	00:32:54.57
2	윤성환	충남	00:38:31.77
3	이규선	경북	00:39:2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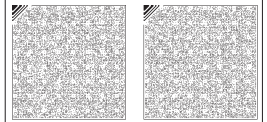
5km T53/54 장년(남)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엄찬섭	충남	00:20:33.98
2	임금천	인천	00:21:46.90
3	정재성	인천	00:23:20.52

5km T51/T52 청년(여)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이정아	충북	00:58:37.00

5km T53/54 청년(여)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정연실	서울	00:27:32.35
2	한미영	제주	00:29:56.07
3	김세정	광주	00:30:11.72

5km T51/T52 장년(여)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함옥희	대전	00:43:59.79
2	김숙자	경기	00:49:04.85

5km T53/54 장년(여)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전미석	인천	00:25:55.68
2	장희수	경기	00:35:05.53
3	박춘자	서울	00:36:26.76



2016 장애인과 함께하는 ICT주간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등 열려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ICT주간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가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ICT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8일까지 '2016 장애인과 함께하는 ICT주간'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ICT주간'은 미래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했으며 '착한 ICT와 동행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4월 18일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우수기업'을 현장 방문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날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전문업체인 ㈜네오엑세스를 방문해 개발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ICT 기술을 접목한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의 현황 파악 및 관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했다.

㈜네오엑세스는 2011년에 설립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전문기업이다. 2013년 미래부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인 '안드로이드 기반의 점자정보단말기'과 제품을 토대로 제작한 관련 제품(네오브레일 : 점자정보단말기)의 성능을 인정받아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또한 금년도 국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품으로도 선정돼 실제로 구매하는 장애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정보통신보조기기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과학기술의 최고 단계는 장애인이 가진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보면 정보통신보조기기 분야는 ICT 분야의 또 다른 선구자"라고 밝히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해당 분야의 기술발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어린이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ICT 보조기기 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

한편 이번 행사주년을 맞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 수요자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서울맹학교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전국 순회 전시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순회 전시회는 국내 우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행사로 금년에 선정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84종을 전시했다. 참가자들은 체험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선택 기회를 접했다.

이번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ICT주간'을 맞아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우리 사회의 ICT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보편적인 국민의 권리로서의 정보접근권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 처음 시작한 이번 주간행사가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보에 손쉽게 다가가고 원하는 정보를 얻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입학 장애인특별전형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원격교육 협약체결
장애인을 위한
특별장학혜택!

- ✓ 등록금 전액무료(국가장학 선발시)
※ 국가장학 미선발시 수업료 50% 감면
- ✓ 출석수업 없이 100% 온라인 강의
- ✓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가능
- ✓ 나이, 컴퓨터 활용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원서접수

개강일: 2016. 8. 29(월)

· 1차모집: 2016. 6. 1(수) ~ 7. 21(목)

· 2차모집: 2016. 8. 1(월) ~ 8. 17(수)

문의처

· 입학문의: 02)2197-4201

· 홈페이지: <http://www.ocu.ac.kr/enter>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 상담심리학과 / 통합예술치료학과 / 실용영어학과 / 부동산금융자산학과 / 창업경영컨설팅학과
주요리디자인비즈니스학과 / 뷰티건강디자인학과 / 재난소방학과

장애 예술가 소통의 장

예술로 다름을 표현하며 장벽 해체



한국무용수 김영민 씨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중구 서소문 W스튜디오에서 장애 예술가들의 토크콘서트가 펼쳐졌다. 강남장애인복지관(관장 허명환)과 월드오픈컬처(WCO)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with my heart-서로 다름을 말하다'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켜 세상과 소통하는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했다.

먼저 시각장애인 플라멩코 무용수인 양서연 씨가 발표를 시작했다. 플라멩코는 스페인의 전통 춤으로 기타와 캐스터네츠 소리에 맞추어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는 격렬한 리듬과 동작이 특색 있다. 양서연 씨는 시각장애가 있지만 플라멩코에 대한 열정은 비장애인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대에 오른 네스트 나다(NADA)의 독고정은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 나다'의 경험을 전했다. 나다는 개인인 '나'가 모여 '다' 함께 소통한다는 뜻으로 2012년 시작해 문화예술 활동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소통 축제 자리매김했다. 페스티벌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진동으로 음악을 느낄 수 있도록 좌석마다 체감형 진동스피커를 설치했고, 대형 스크린에 음악을 시각화한 미디어 아트 영상을 걸기도 했다. 행사의 모든 내용을 실시간 수화 통역과 자막으로 전달하며 감동을 공유했다.

독고정은 대표는 "어떤 장애가 있건 거리낌 없이 나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문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편견의 장벽에 금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언어가 아닌 오직 몸으로

한(恨)을 표현하는 청각장애인 한국무용수 김영민 씨의 토크도 박수를 받았다. 그녀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무용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세상의 편견을 뒤집고, 전문 무용수로 우뚝 섰다. 이날 실제 공연을 선보이며,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자폐성장애인 정다운 작가의 어머니 고유경 씨는 언어의 소통보다는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 줬다. 고유경 씨는 "정다운 작가의 그림을 통해 자폐성장애인이 세상과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모던 락 밴드인 배회관밴드가 이번 토크콘서트를 축하하며 공연을 했다. 이들은 유쾌한 에너지로 청중과 공감하며 환호를 받았다.

장애인 가수 박경훈 '추억의 멜로디'

흥겨운 트로트 가락 21곡 삽입

지체장애인 가수 박경훈이 '추억의 멜로디' 음반을 발매했다.

이번 앨범에는 흥겨운 트로트 가락의 노래 21곡이 들어 있다. '뽕이야뽕뽕'으로 분위기를 돋

우고, '제주올레길'과 '문경새재' 등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게 만든다.

가수 겸 작곡가로 신인가수를 발굴하고 지도해 온 그는 최근

자신의 앨범과 함께 제자인 신인가수 데레사의 앨범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음반 문외한 02-942-3332, 박경훈노래고실로 하면 된다.



박경훈과 데레사의 '추억의 멜로디' 음반.

대구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확정

2018년까지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설 예정

대구시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 100억 원(국비50, 시비 50)을 투입해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설을 2018년까지 추진한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연

면적 4,000㎡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및 체력인증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이 만들어진다. 올해 내 유관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지역 내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없어 전문체육인 육

성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체육관 건립으로 장애인 체육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습 공간이 부족해 타 지역 시설을 입차 사용하던 보치아, 탁구, 배드민턴, 좌식배구 등 실내종목의 경기력 향상에 기대

된다. 시 실업팀인 탁구와 휠체어 농구팀의 훈련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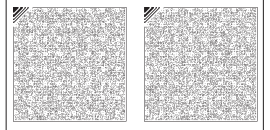
현재 지역 장애인 인구의 5% 정도가 체육활동에 참가하고 있지만, 체육관이 건립되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장애인체육 참여율이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현재 정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도 유치해 체력측정, 운동처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체육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체력증진, 재활치료, 스트레스 해

소 등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 곳에서 홍보, 상담,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단련은 물론, 각종 대회 개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대구 장애인 체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일본, 장애인차별해소법 시행

민간에도 장애인 합리적 배려 의무 부여



「장애인차별해소법」 안내 팸플릿. © 일본 내각부

지난 4월 1일 일본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해소법)」을 시행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이 법은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대책을 대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며 법을 시행을 반기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차별해소법은 먼저 국가 등의 공공단체와 민간 사업자에게도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배려」에 대해서는 국가만 법적 의무를 지게 했다. 합리적 배려란 장애인이 열차에서 승하차하는 경우나 역사 내에서

이동 시 철도회사 직원이 돕는 것처럼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사업자는 합리적 배려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려우므로 「노력 의무」만 진다. 단, 민간 사업자가 정부가 요청한 노력 의무 보고를 따르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벌칙을 받는다.

내각부는 장애인차별해소법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이 요구하는 배려의 예를 몇 가지 밝히며 홍보하고 있다. 내각부의 안내 팸플릿에는 ▲높은 곳에 진열한 상품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 꺼내 주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입구에 경사로 설치 ▲시각장애인에게 식사 메뉴나 문서를 읽어 주기 ▲지적장애인에게 쉬운 설명을

담는 자료를 건네기 등의 예가 나온다.

이어서 장애인 차별 사례도 들었다. ▲병원을 방문한 청각장애인에게 필담할 시간이 없다고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안내견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온 시각장애인에게 “동물은 가게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나온다.

법 시행을 주관하는 내각부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관련 15개 관청에 장애인차별해소법 민간사업자용 대응지침을 만들도록 전달했다. 그러면서 내각부는 “민간 사업자가 법을 이해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들리는 만큼 관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매끄러운 이행을 돕자”고 권했다.

『장애인의 경제학』의 저자인 나가시마 타카노부(케이오대 교수)는 장애인차별해소법 시행과 관련해 “일본이 곧 진입할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모의 간호를 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난다. 생활에 불편을 겪는 당사자나 이를 돕는 가족 모두 곤란을 안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가 온다. 장애인차별해소법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앞서 의식을 전환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장애인을 특별시 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은 시행 후 3년 동안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배려의 상황을 검토해 추후 보완할 계획이다.

‘손가락 없는 피아니스트’에 갈채

16세 소년 로마노프 영상 전 세계 퍼져

러시아의 ‘손가락 없는’ 16세 소년, 알렉세이 로마노프의 피아노 연주가 화제다.

몽툭한 손끝으로 피아노를 치는 로마노프의 연주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의 손가락 없는 장애인 소년 로마노프가 유명 피아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서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보육원에서 자란 로마노프는 태어날 때부터 두

손이 없었다. 선천적 질병으로 아예 손이 형성되지 않았다. 몽툭한 손을 가진 소년이 피아니스트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로마노프가 음악적 재능을 깨닫게 된 데는 2년 전 그를 입양한 양부모의 역할이 컸다. 양부모는 모차르트와 비발디 음악에 빠지는 로마노프를 보고 피아노를 가르쳤다. 학교에서는 음악 교사가 영화 ‘타이타닉’, ‘트와일라잇’ 등의 곡을 가르치며 재미있게 배우도록

도록 독려했다.

피아노 연주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며 스타가 된 로마노프는 지난 2월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실내악 오케스트라 ‘라프리카베라’와 협연을 했다.

최근에는 모스크바로 초대받아 ‘미래에서 온 손님’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러시아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방송에서 로마노프는 한국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히트곡 ‘리버 플로우즈 인 유



손가락이 없는 로마노프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 YouTube

(River Flows in You)’를 연주했다. 몽툭한 손으로 연주한 서정적 선율에 러시아 누리꾼들은 “깊이 감동했다”, “알렉세이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한편 로마노프는 지난 3월

장애인학교에서 음악전문학교로 전학해 전문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몸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힘 같은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국 시각장애인 도우미 앱 배포

시각장애인 도움 요청 시 자원봉사자와 연결

중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 산하 연구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See4me’를 내놓았다.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공신부 연구소는 비영리 IT연합과 함께 개

발한 ‘See4me’를 5월 16일부터 무료 배포했다.

미국 쉐클은 사회공헌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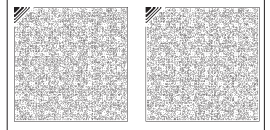
에서 이 앱의 개발비를 지원했다.

이 앱의 이용자는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로 크게 구분된다. 시각장애인이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자원봉사자와 곧바로 연결된다.

자원봉사자는 실시간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대화하며 시각장애인을 돕는다.

공신부 연구소는 자원봉사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정해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고 밝혔다.

앱은 이밖에도 다양한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각장애인은 ‘See4me’를 통해 받은 이메일 내용을 귀로 들을 수 있고, 항공권 구입이나 병원 진료 예약도 가능하다.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사업 전국 실시

——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박성오 부장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 제거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중앙센터장 김광환, 이하 편의센터)는 2015년 3월호 '새보람'에 "사용승인만 받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제거하기 일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준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적정설치율은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1년 후 모니터링 결과 적정설치율이 겨우 53%로 나타난 충격적인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는 건축주나 관리자가 사용승인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소홀할 뿐 아니라 제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40%나 발생하며 나타난 결과였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저해하는 요소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사업을 전국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은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해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재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편의증진법 제9조(시설주 등의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유지·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주관기관에 위반 내용을 전달해 시정명령 등의 개선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적

발할 부적절 사례 유형은 1)장애인 편의시설 임의제거, 2)장애인 편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3)장애인 편의시설 일부나 전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발 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기사에서는 경기센터의 사례만을 대표적으로 보도했지만, 전국적으로 민원이 제보된 사항으로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인

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센터에서는 상·하반기에 걸쳐 2,000여 개소의 대상시설을 선정해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에는 전국 1,000여 개소를 대상 시설로 선정해 6월 중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7월 중 조사 자료를 취합해 조사 결과를 도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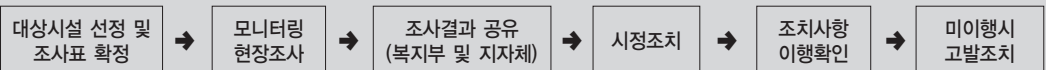
에 자료를 공유해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등의 행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 추가로 실시하는 운영실태 모니터링 시 상반기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진척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임의로 철거하는 등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편

의시설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편의센터는 시설주로 하여금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하고자 한다.

이번 운영실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지속적인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의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

진행절차



유형1) 장애인 편의시설 임의 제거



사용승인 당시



현장점검 결과

유형2)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불가



장애인화장실을 창고로 사용

유형3)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소홀



주출입구 점자블록 탈락

30대 그룹 중 24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모범 보여야 할 국회와 교육청 저조

지난해에도 30대 그룹의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일부 교육청 등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아 국가·자치단체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633곳의 명단을 5월 12일 공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다.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표 대상이 된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이 1.35% 미만이다. 공공기관은 1.8%,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35% 미만일 경우다.

30대 그룹에서는 동국제강, 두



장애인들이 취업박람회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산,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에스오일 등 6개 그룹을 제외한 24개 그룹 계열사 64곳이 포함됐다.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계열사를 가장 많이 포함한 기업집단은 포스코 7곳, 동부 5곳, 신세계 4곳, GS 4곳, 한진 4곳, 금호아시아나 4곳, 현대중공업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계열사 36곳은 2회 연속

저조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실리콘웍스, 대우인터내셔널 등 2곳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국가·자치단체로는 국회(1.45%)와 서울·인천·대구·경기·충남 등 8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39.9%), 건설업(28.7%), 금융

및 보험업(26.4%) 등에서 300인 이상 기업 중 명단공표 포함 기업 비율이 전체 평균인 17.7%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에서 씨티은행, KEB 하나은행,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미달하는 기업이 79.5%에 달했다.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은 모두 41곳으로 지오다노, 엘브이엘에치코스메틱스, 에이에스엠엘코리아 등이 명단에 올랐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 615곳을 공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기업·기관에는 지난해 이름을 올린 기업과 기관이 대거 포함돼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30대 기업, 금융업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들이 대다수 명단공표에 포함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 확충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퀴즈

1. 삶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한 장애인 배우자를 초청해 격려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1994년부터 개최한 이 대회는 올해 6월 3일 열린다. 대회 이름은?
2. 지난 5월 3일 전남 장성군에 장애인 종합 복지시설인 이 복지관이 개관했다. '섬기는 마음으로'라는 관훈을 내걸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 운영하는 이 복지관의 이름은?
3.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독자의견

제20대 총선에서 장애인 정치 참여를 배제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 기사와 논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회적 문제점을 발언하는 새보람이 되길 바랍니다.

- 김용문

싱가포르 편의시설 선진지 견학 기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실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일본에 이어 새보람을 통해 국제적 견문을 넓힐 수 있어 좋습니다.

- 이성진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이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 주소와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정답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미학적 불안감

당첨자

서울 강동구

대전 서구

경남 양산시

김용문

이성진

최수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작업장
가브리엘작업장



"천연비누세트, 답례품, OEM"

필요한 제품 주문해 주세요.
소중한 사업에게 하는 선물·행사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원하시는 문구/이미지 예쁘게 넣어 드립니다.
밀고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장은 장애인생상을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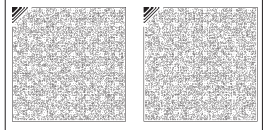
가브리엘천연비누 1구 가브리엘천연비누 3구 가브리엘천연비누 4구 답례품(천연비누)

♡문의♡

Tel. 02-951-9707 Fax. 02-951-9708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서로 24라길 04-13
<http://www.gabrielcenter.or.kr>

민원상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임상범 기획정책국장보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Q)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가 생소한 제도인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객관적인 소득이 확인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증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미성년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감경제도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신설·도입해 201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는 위 당사자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감경제도는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제재의 실질적 형평성을 과

태료 기준에 반영하여 책임주의 원칙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과태료 징수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과태료 부과 시 사회적 약자 가족구성원에게도 적용되는지요?

A) 과태료는 일신전속적(그 사람만이 해야 하는 의무) 성격의 행정 제재이므로, 과태료 감경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실제 질서위반 행위자가 아닌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에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과태료 부과

는 특수성을 고려한 일종의 특례 조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명의자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 감경이 된다고 확신해도 되나요?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과태료는 50% 감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감경여부 및 감경정도'는 행정청의 재량 결정(개별

법령의 별도 개정 필요)입니다.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자진 납부 시 추가적인 감경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본 감경제도에 따라 50% 감경을 한 50만원에 추가로 20% 자진 납부 감경을 적용하여 감액된 최종 금액인 40만원을 기간 내 완납하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단 주의할 것은 한 건의 과태료 체납 건이라도 있는 자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립니다

복지뉴스

저소득층 위한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 문화예술, 국내 여행, 프로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카드다.

이 카드는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카드로 2014년 2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신청자격은 6세 이상(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이다. 법정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등도 신청 대상이다.

가까운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 기간은 2016년 3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온라인 신청 시엔 본인 인증 수단(핸드폰, 공인인증서)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신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청을 하고 자격확인 한 다음 카드를 받기까지 약 15일이 소요된다.

방문 신청 시엔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를 지참하면 신청 절차가 간편하다.

동일 카드에 올해 지원금을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자격확인을 거쳐 발급받는 데 최

대 7일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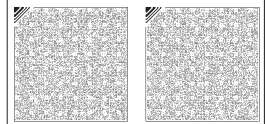
지원 금액은 개인별 연간 5만 원이다.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 카드도 동일하게 연간 5만 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하며, 이월 및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지원금 소진 이후에도 추가 입금하면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개인충전금은 카드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사용, 인출할 수 있다. 잔액 확인은 발급 신청 시 문자 수령 동의에 체크하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은 해당 가맹점을 알아두고 사용하면 편리하다. 오프라인 가맹점은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놀이공원,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으로 다양하며, 온라인으로 도서 구입이나 공연 예매 등도 가능하다. 더 다양한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로 전화하면 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인권의 역사와 장애인 인권의 과제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지원부 김혁성 과장



지난해 진행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의 전경. 이곳에서 전 세계 활동가들의 활발한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명과 함께 태동한 인권

인권(人權)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인권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생명 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원시시대를 지나 본격적으로 문명이 태동하면서 함께 인권의 개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의 질과 생활 방식이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인권 개념도 확장됐지만, 근대 이전에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귀족 같은 지배계층에만 존재했고, 노예나 여성, 장애인들은 동등한 인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를 찾는 과정은 격렬했다. 혁명의 한 가운데서 함께 연대하기도 했고, 때로는 외롭게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기도 했다.

혁명은 기존에 존재해 온 것과 그것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것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다. 과거에는 당연했던 일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변화가 생긴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변화의 에너지가 넘어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혁명은 인권 발전의 역사적인 계기로 존재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혁명에서 공식적인 문서에 '권리'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때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를 생명, 자유,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옹호에서 찾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배 계층을 위한 권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인권과는 차이가 있다.

권리에 대한 인식은 18세기로 넘어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버지니아 인권 선언(1776년)을 탄생시켰고, 19세기 선거법 개정까지 이어져왔다.

현대적 의미의 인권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1919년)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다. 기본권은 물론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가 지 연관시키기 시작했다.

격동의 시대인 20세기,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범을 도입했다. 그 결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인권을 각 나라의 특수한 사례에만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하며 공론화시키는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그 후 각국 인권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국제인권규범은 더욱 힘을 갖게 된다. 지속적인 성과를 축적하며 1959년 아동의 권리선언, 1971년 정신박약인의 권리선언을 선포했다.

장애인 인권운동의 발전

장애인 인권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움직임은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가 시작이었다. 이때를 계기로 국제 사회는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갔다. 1982년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한 데 이어 세계장애인 10년(1983~1992)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설정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뿌리 깊게 존재해 온 장애인 차별이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국제장애인단체들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협약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렸다. 1987년 이탈리아 정부가 세계 장애인 10년 중간평가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안했

고, 2000년 중국 정부가 협약과 관련한 제안을 유엔 사회개발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오랜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1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다.

한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미흡

장애인 권리장전이라고도 불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 부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했고,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했다.

협약이 발효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과 장애등급시스템이 의료적 모델에 기반을 둔 장애인의 서비스 자격을 제한하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과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도 제한적이며, 성년후견인제는 후견인이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성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며 국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 실현 위한 장애인단체의 역할

인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투쟁과 혁명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인권을 발전시켜 왔다. 앞서 살펴봤듯이 시대별로 인권 향상을 이룩하는 데는 많은 고통과 시련을 동반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속에서 성장해 온 역사를 기억하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의 장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 장애인 인권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달할 곳이라며 기다리기만 한다면, 인권 보장으로 가는 길에 많은 장애인이 회생을 치를 것이며 우리는 기나긴 여정을 돌아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단체는 이를 막고, 장애인 인권 활동의 질적 수준과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먼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그 성과를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환류하며 역량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 성과가 장애인에만 머물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 보편적 의제로 이슈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 의제가 보편타당성을 확보할수록 장애인 인권 향상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중앙장애인인권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 230개 시·군·구지회의 장애인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장애인인권위원들은 각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 전문가 양성과 인권상담,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지체장애인인권위원회가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단체로서의 전문성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장애인 인권 옹호에 앞장서며, 진정한 인권을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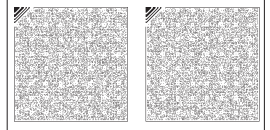
참고
박래균, 월간 『사람』-인권의 역사, 2005.7~2006.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75호 2016년 5월 27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장협은 전국 장애인복지 발전의 전초기지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장애인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홍보부장이자 새보람 편집장으로 전국을 활보하던 인물. 이후 에이블뉴스를 창간해 정보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현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취재와 보도, 그리고 사회와 소통한 백종환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1989년 장애인신문에 입사하며 장애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장애계 언론에 입사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요?

A. 어릴 적 잠시 보육원에 기거하며 생활교사가 되는 꿈을 꿔왔습니다. 그곳이 내게 따뜻한 위안을 줬기 때문이죠. 장애계에 관심이 생긴 계기는 대학 다닐 때 장애인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였습니다. 장애인 현실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졸업 후 입사한 신문사에서 장애인 관련 기사를 첫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1989년 장애인신문이 생기면서 그리로 이직했고 지금까지 장애계 언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Q. 장애인신문 기자이던 당시 지켜본 지장협은 어떤 곳이었나요?

A. 신생단체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국적 조직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다른 장애인단체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부정적인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타 단체 출입기자로 지장협에 대한 비판을 많이 들어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故 장기철 회장님을 만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Q. 장기철 회장님과 첫 만남은 어땠는지요?

A. 1990년 용산을 지나다 지장협 간판이 보이기에 들어갔습니다. 20대 젊은 기자의 패기였을까요. 나는 스무 살도 넘게 차이 나는 장기철 회장님과 마주 앉아 두 시간 동안 독설을 해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밖에서 사납고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갑작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날부터 장 회장님과 지장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992년 가을, 내가 쉬고 있을 즈음 장기철 회장님이 밤낮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회장님의 지속된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지장협 홍보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나는 입사해서도 회장님의 의견과 반대되는 주장을 곧잘 했습니다. 회장님은 처음 그때처럼 한 번도 역정 내지 않고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Q. 1990년대 초반 장애인복지지는 아직 재할 중심, 시설 중심을 벗어나지 못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장애인당사자단체인 지장협은 어떻게 활동했는지요?

A. 당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로만 보는 수동적인 사회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이 의견을 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장애인들의 박탈감이 큰 상황에서 지장협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절대적 빈곤에 빠진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죽고 사는 문제로 인식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뭉쳤고, 지장협이 이러한 요구와 정책을 결집해 장애인정치 세력화를 외치며 우뚝 섰습니다.

Q. 지장협이 우리나라 장애인정치세력화에 기여한 바는?

A. 지난 17~19대 국회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한 토대는 지장협이었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장기철 회장님이 지장협 내 의회정치대학을 만들어 정치신인을 양성했습니다. 조직규모도 전국적으로 키워 장애인을 세력화했습니다. 또 지체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장애인단체들을 규합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건설하며 장애계 단결의 선봉에 섰습니다.

실제로 주요 정당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요구한 시초도 장기철 회장님이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정치세력화의 기회

과 실행은 대부분 지장협이 이끌었습니다.

Q. 1992년부터 5년간 새보람을 제작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새보람은 공식 협회지이자 장애 관련 정책 제시와 장애 문제 여론화에 힘쓰는 언론으로 거듭났습니다. 제작에 중점을 둔 점은?

A. 단순 보도에만 그치지 않고 타 언론에 확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국 자립작업장 실태 취재, 장애인 배우자 의식 조사, 장애인 보장구 관세법 등 힘있게 조사하고 취재한 내용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새보람에서 취재한 내용이 중앙 일간지에 실리고 방송에도 나

갔습니다. 일반 언론사의 경우 보도만 하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보람은 지장협의 신문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이 마땅하고, 난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이슈화했습니다. 사안이 이슈가 되면 청와대나 각 시·도 사회 복지 담당자들이 해결을 위해 전화를 하거나 해명하는 등 피드백이 돌아왔습니다. 새보람이 제기한 사안이 하나 둘 해결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지장협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단체로 거듭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A. 발전의 원동력은 조직력이라고 봅니다. 지장협은 아무리 힘들어도 시·군·구지역까지 사무실을 열도록 했습니다. 초기에 운영비도, 직원도 없고 오직 공간만 있던 지장협 각지의 사무실은 장애인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장구나 바둑을 두고 친목을 다지는 정도였습니다. 장애인 정책이나 인권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집에만 있던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온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여서 저마다의 삶을 이야기하며 정립하다보니 원래 계획한 장애인복지 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장애인 운동의 전초기지가 된 셈입니다. 그 기지가 오늘날 전국의 장애인복지 발전의 균형을 잡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Q. 창립 30주년을 맞은 지장협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요?

A. 지장협은 어려웠던 1980년대부터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내걸고 주요 이슈를 선점하며 성장한 단체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크고 안정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만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장애계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는 표본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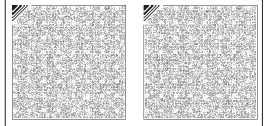


1994년 6월 5일 백종환 대표가 제3회 대구휠체어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맨 왼쪽).

장애계인사이드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선하 관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홍보 전략



홍보란 '존재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한다. 최대한 좋은 쪽으로 관계를 맺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데, 요즘 홍보는 예전과는 다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징이 있다. 과거에는 TV나 신문, 옥외광고 등을 통한 한 방향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현재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홍보, 홍보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러한 대중의 반

응은 곧 기관이나 조직의 이미지가 된다. 슬라이스셰어의 'Digital in 2016'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세계 총인구 약 74억 명 중 약 34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며, 그중 87.1%에 해당하는 약 30억 명이 온라인 뉴스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80%를 넘어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경우 부족한 운영비 안에서 비용 지출을 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가치와 이념을 알릴 방법은 무엇일까?

요즘 10명 중 7~8명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관심사를 공유하고 개인의 생각과 일상을 노출한다. 카카오톡, 페

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우리는 10원 한 푼 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홍보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계망을 생각할 때 기관이나 단체의 홍보 및 기획 담당자 혼자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발송하고 소셜미디어 및 SNS에 동일한 뉴스나 메시지를 반복해 기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홍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의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기관 및 단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뉴스를 전한다면 어떨까? 정형화된 틀이 아닌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개인의 생각을 덧입혀 표현할 때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기관 및 단체의 홍보 담당자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관이나 단체의 계정을 운영한다면 그곳에서 콘텐츠에 관심을 둔 이들의 토론을 일으키고 반응을 유도해야 한다. 때로는 직원들이 댓글 알바생이 되어야하고 계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인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대화 소재로 삼는다. 이러한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 활용도 필요하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뉴스와 메시지를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찾아오게 만드는 계정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만이 가지는 '스토리', '색깔'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효과적인 SNS 홍보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생활상식, 따뜻한 이야기, 뉴스, 혹은 날씨,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를 우리 계정을 통해 접하게 하고 우리 기관이나 단체의 가치와 이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의 다각화도 필요하다.

오프라인 홍보는 잘못하면 비용과 시간 대비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형식적으로 부스만 설치하고 홍보에 관심 없는 기관이나 단체를 보면 안타깝다. 온라인 홍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눈에 띄는 프로모션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고객, 미래의 후원자, 자원봉사자에게 기관 및 단체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전략적 홍보란 기관과 단체의 목표를 변화하는 마케팅에 접합시켜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당신이 라면 어떠한 글을 읽고 어떠한 정보에 관심을 보이겠는가?



1등이 되기 보다는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제작구매를 해 주신 수익금 전부는 30명 이상의 근로장애인들에게 인건비와 각종편의시설 및 복지증진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와 같은 생산품구입으로 희망을 전하세요.

인쇄사업



기획·디자인·인쇄

현수막사업



가격저렴·최고품질·납품및시공

DM발송사업



최소비용·최대의 마케팅효과

임가공사업



저렴한 생산단가·빠른 출고

중증장애인생산물시장
곰드래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1320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천로 226번길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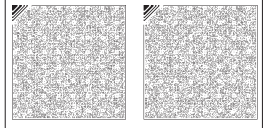
t. 031 736 0042 f. 031 736 1114

e-mail, hgr07@hanmail.net www.hgr07.or.kr

복지마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복지와 지역조직의 안정화



매년 초에 진행되는 협회 초도순시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며, 중앙회장의 의무이기도 하다. 순시에서는 중앙회와 지역 협회가 만나 터놓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면담을 통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자리에서 지역 협회는 단체장에게 우리 협회의 위상을 보이며 지역에서의 역할을 홍보하고 각

인시킨다.

지역에 가면 협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지역 장애인복지를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지 느껴진다. 저마다 각 지역에서 장애인복지에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개선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역에 절실한 장애인정책을 연구해서 제안하고, 제정된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는지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을 요구한다. 또 차별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학교나 각종 모임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어디 이뿐이라.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을 발굴해 자립을 지원하고, 문화·스포츠 등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장애인복지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세심하고 치밀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는 순시를 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는 회원과 지도자들에게 몽글한 감동을 받는다. 이제 우리 회원과 지도자들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장애인복지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언을 해 본다.

우리 협회는 국내 최고의 장애인당사자 단체로서의 위상이 있는 만큼, 시혜적 복지를 넘어 지역사회공헌은 물론 사회통합에 앞장서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인 동시에 지역에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원자(支援者)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의 복지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며 복지환경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도자

들의 피나는 노력과 자기계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직원과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무별·주제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 조직 안정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한 주력 사업을 확보하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조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 협회나 지회의 운영에서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역사의 흐름에 있어 영웅과 리더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기반에는 민중이 있다. 민중의 결집력과 의식은 역사 발전의 구심점이다. 장애인복지발전사에서도 장애인당사자들의 변화가 바로 역사 발전의 모태가 되어 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있다. 우리 협

회의 역사는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고 전국적인 협력과 의식화를 이끄는 장애인당사자 민중의 역사 그 자체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발전적인 복지를 이룩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그것은 비단 장애인복지 발전만을 위한 길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척도가 되고, 사회복지 발전은 사회 전체 발전의 토대가 된다.

이에 우리는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을 미션으로 미래비전을 밝혔다. 우리 협회는 장애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복지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지장협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두 손에 달려 있다.

리더스토리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김덕선 협회장



장애인 정치세력화, 멈추지 말고 전진하자

판했다. 즉 선거 때는 공약을 남발하면서 당선되면 흐지부지하는 식이다.

필자는 이번 20대 총선을 치루면서 느낀 점이 많다. 이번 선거는 여야 모두 실패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어우르는 정책도 없이 지역성, 당리당락, 폐쇄성 등을 내세워 자신만을 혹은 자기 당을 찍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실패한 선거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 250만 명이 넘는다. 등록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로 반영하기 어려운 소수자 집단, 사회 취약계층, 다양한 직능의 이해를 균형 있게 대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 수는 새누리당 17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3명, 정의당 4명 등 47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들 비례대표 당선인은 모두 비장애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들은 이런 소수자 집단, 사회 취약계층에도 못 들어가는 '인권'을 가진 인간들인가? 정말 정부 당국에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인구 5%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정치차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장

애인들은 분명 알고 있다. 이번 총선 전부터 정치권은 민의(民意)를 무시했다는 것을. 국민이 인중에 없는데 장애인이 그들의 눈에 들어올 리 더더욱 없었다.

장애인 인권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장애인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이라고 한다. 장애인 운동의 발전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연금법」 등 다양한 법령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법도 없이

인권을 박탈당했던 시절에 비하면 발전했지만, 장애인 인권보장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권 유린, 고용 차별, 안전사고 등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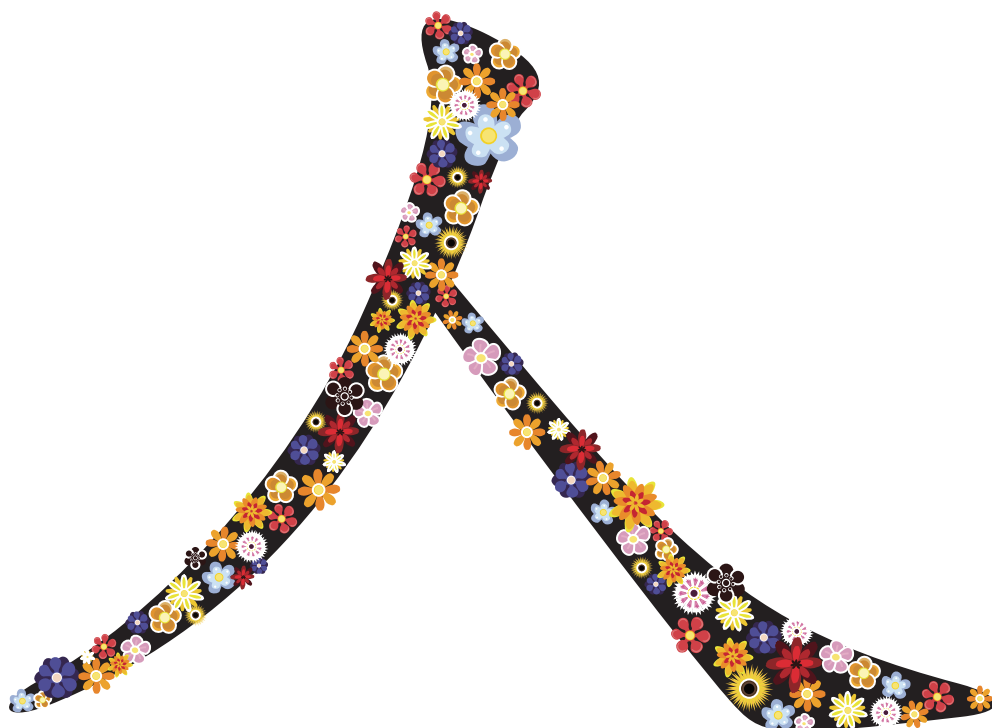
“당신들이 그렇게 외치는 봉사, 헌신, 인권 등은 선거 때만 사용하는 구호입니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작으나마 존재했던 입법창구를 봉쇄하다시피 한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전에 관해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정치참여를 보장할 정식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입해야 한다.


또 우리 장애인들은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번 기회로 더욱 단결해 정치세력화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사람 '人'이란 상형문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야만 설 수 있듯이...


 일 시 : 2016년 6월 3일 (금) 13:30


 장 소 : GLAD 호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내 용 : 모범배우자 표창, 리프로포즈 사진촬영, 힐링토크쇼 등

* 시상 : 장한배우자상(전체대상), 아름다운배우자상, 자립상, 가화상, 특별상 등

* 수상자 특전 : 장관 및 대회장 표창, 부상 전달, 새보람 수기 연재 등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후 원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